

경찰관의 PTSD 수준 및 대처방안

Levels and Countermeasures of PTSD among Police Officers

신성원

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Seong-Won Sin(police7@dhu.ac.kr)

요약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 따르면 최근에 위급상황에 노출되었던 경찰관 중 상당수가 심각한 심리적 스트레스 상태에 있으며, 사기, 장기 결근, 직업적 건강, 조기 퇴직, 가족 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 PTSD) 증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그 동안 경찰관의 PTSD를 실증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 연구에서는 경찰관의 PTSD 수준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처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경찰관의 PTSD 수준은 연구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비교적 높은 수준이고, 소방관과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고위험 경찰관의 발견 및 관리, 위기상황 스트레스 관리 기법의 보급, 직원 지원 프로그램의 도입, 동료 및 가족의 적극적 개입, 스트레스 관리 교육 등을 제시하였다.

■ 중심어 : | 경찰관 | PTSD |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 스트레스 | 대처방안 |

Abstract

According to many studies, a large number of police officers who had recently been exposed to an emergency situation has serious psychological stress and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PTSD) symptoms impact on morale, absenteeism, occupational health, early retirement, family relationships. However, in Korea as it looked during the empirical study of police officers with PTSD had a few.

In this study, levels of PTSD among police officers to identify and respond accordingly was to seek ways. The officer's PTSD levels vary according to the study is the relatively high level, when compared to firefighters is a relatively high level. So, I suggested some countermeasures. I presented discovery and management of high risk police officers, distribution of critical incident stress management, introduction of employee assistance programs, active intervention of colleagues and family members, training of stress management techniques.

■ keyword : | Police Officers | PTSD |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 Stress | Countermeasures |

I. 서론

전쟁,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성폭행 등과 같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심각한 손상위험을 주는 극심한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외상(trauma)이라고 한다. 이

외상에 잇따라 나타나는 여러 가지 정신적, 신체적 증상들을 총체적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 PTSD)라고 한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주로 전쟁피해자를 중심으로 1970년 무렵부터 활발하게 연구되었으며, 지금은 그

* 이 논문은 2011년 5월 20일에 개최된 한국콘텐츠학회 2011 춘계종합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임
접수번호 : #110916-003
접수일자 : 2011년 09월 16일
심사완료일 : 2011년 10월 07일
교신저자 : 신성원, e-mail : police7@dhu.ac.kr

대상에 천재지변, 교통사고, 산업재해사고, 강간, 인질, 조직폭력 등으로 인한 희생자들을 포함시키고 있다.

경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조사의 결과들에 의하면 이론적 배경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최근에 위급상황에 노출되었던 경찰관 중 상당수가 심각한 심리적인 스트레스 상태에 있으며, 사기, 장기 결근, 직업적 건강, 조기 퇴직, 가족 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그 동안 경찰관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실증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사건들로 인한 직접적인 육체적 상해 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심리적 충격 그리고 단순한 목격만으로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선행연구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실태를 가늠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찰관의 실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처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일상적 스트레스의 영역을 초과한 극심한 스트레스(예를 들어, 총격, 폭행, 시체의 목격 등)를 경험한 경우 발생하는 반응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외상성 스트레스의 징후에는 수면장애, 악몽, 경험한 사건에 대한 회상의 회피 등이 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진단 기준으로는 미국 심리학회 of the 진단 및 통계위원회가 1994년 발간한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 4판(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IV : DSM-IV)이 주로 사용된다[1].

이 진단기준표는 진단기준을 크게 세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진단기준 A는 PTSD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외상 및 외상적 사건의 정의, 외상에 대한 개인의 반응을 보여준다. 진단기준 B에서 D까지는 PTSD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임상적 특징들이 제시된다. 따라서

이 부분은 PTSD 증상을 이해하는 핵심부분이다. 그리고 진단기준 E 이하는 PTSD의 경과와 하위 유형을 제시한다. 하위 유형은 장애의 지속 기간과 발생시기를 근거로 나눈 것이다[2].

2. 선행연구의 검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주로 전쟁피해자를 중심으로 1970년 무렵부터 활발하게 연구되었으며, 지금은 그 대상에 천재지변, 교통사고, 산업재해사고, 강간, 인질, 조직폭력 등으로 인한 희생자들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들 희생자들이 당한 사건들은 예측이 어렵고, 피해자에게 극심한 손상을 입히며 그 피해의 후유증 등이 오래 지속된다[3].

자연재해나 인재와 관련된 여러 보고들을 종합하여 보면 재해의 종류, 발생 지역, 평가 대상, 평가 시점 등에 따라 다양하지만 최소한 일반인의 약 10% 이상이 일생 동안 재해에 해당하는 외상적 사건에 노출된다고 한다[4].

최근 국내에서는 연평도 사태 이후 포격 피해 주민들과 구제역 사태 이후 가축 살처분에 참여한 공무원과 농장주 등 관계자들이 겪고 있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Carlier 등은 최근에 위급상황에 노출되었던 경찰관들 중 7%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상황에 처해있음을 보고하였으며, 34%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보다는 정도가 약하지만 심각한 심리적인 스트레스 상태에 있음을 보고하였다[5].

Ohio 경찰관들에 대한 조사연구에서도 13%가 PTSD로 분류되는 결과가 나타났다[6]. Robin 등에 따르면, 교외(suburban) 경찰관의 13%가 사기, 장기 결근, 직업적 건강, 조기 퇴직, 가족 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PTSD 증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7].

뿐만 아니라 Kroes 등에 의하면, 경찰관들은 위험하고 폭력적인 사건들로부터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연구대상자들 중 60%는 위기상황에 의해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응답하였다[8].

이와 마찬가지로 Spielberg 등 경찰관들에게 60

가지 문항과 관련되어있는 스트레스의 양을 배열하도록 질문하였으며, 최상위의 3가지 항목은 “근무 중 동료경찰관이 살해되었을 때”, “직무수행 중 누군가를 살해하였을 때” 그리고 “학대받거나 살해당한 아이를 발견한 경우”를 들었다[9].

III. 경찰관의 PTSD 수준

외상성 사건의 노출에 따른 외상성 스트레스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측정하기 위해 여러 가지 척도들이 개발되어 왔는데, Horowitz 등(1979)은 외상관련 증상을 자기보고식으로 작성하는 척도인 사건충격척도(Impact of Event Scale : IES)라는 도구를 개발하였고[10], 이 척도는 현재까지 전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11].

IES는 가장 흔하게 보고된 외상과 관련된 심리적 반응 양상들 중 침습 및 회피 증상을 확인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IES는 또한 특정 외상 생활 사건의 심리적 영향을 연구한 조사연구에서 사용되었으며, 치료 연구에서 성과 측정을 위해 사용되어왔다[12].

그러나 원문 IES가 PTSD의 핵심 특징 중 하나인 과각성 증상을 측정할 수 없어서, Weiss와 Marmar가 1997년 IES 수정판(Impact of Event Scale Revised: IES-R)을 고안하였다[13].

IES 원판에서는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나, IES 수정판에서는 22문항으로 변화되었으며, 8개의 침습(intrusion) 증상, 8개의 회피(avoidance) 증상, 6개의 과각성(hyperarousal) 증상을 측정하도록 재구성되었다. 채점법 역시 수정되어 IES 원판에서는 지난 1주간의 증상빈도는 4점 척도(0-1-3-5)로 평가하였던 것이 IES 수정판에서는 지난 1주간의 증상심도를 5점 척도(0-4)로 평가하도록 구성하였다[14]. Weiss의 IES 수정판이 나온 이후 IES 수정판 표준화에 대한 연구가 일본, 프랑스, 중국, 독일 등지에서 진행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은현정 등(2005)이 한국어판 사건충격척도 수정판(IES-R-K)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평가해본 결과 일본, 중국, 프랑스, 독일의 IES-R 표준화 연구

와 비교할 때, 신뢰도와 타당도가 우수하게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IES 및 은현정 등(2005)이 제시한 IES-R-K를 활용한 연구들을 중심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실태를 파악하였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수준을 은현정(2005)의 연구에서 제시한 절단점을 중심으로 하여 분류하여 보면, 25점 이상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수준이 높은 완전 PTSD 집단, 18-24점을 부분 PTSD 집단, 17점 미만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수준이 낮은 정상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1. 경찰관의 PTSD 수준

연구자	완전 PTSD (25점 이상)	부분 PTSD (18-24점)	평균 (표준편차)
신성원 (2007)	33.3% (348명)	8.8% (92명)	16.02 (15.75)
황인희 (2009)	12.7% (70명)	8.5% (47명)	-
이옥정 (2010)	22.9% (64명)	17.1% (48명)	16.3 (13.95)
Gersons (1989)	46%	46%	-
Dwyer (2005)	14.8%	28.6%	-

이를 경찰관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연구한 국내 외 연구결과들과 비교하여 보면, 연구마다 다소 상이하지만 완전 PTSD의 경우는 타 연구들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부분 PTSD의 경우는 반대로 타 연구들보다 낮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경찰관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수준은 다소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표 2]는 소방관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수준을 제시한 것이다. 경찰관과 달리 소방관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서는 1990년대 초반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표 2. 소방관의 PTSD 수준

연구자	완전 PTSD (25점 이상)	평균 (표준편차)
권순찬 등(2008)	13.7%(20명)	11.26(13.12)
최혜경(2010)	36.9%(805명)	13.74(7.39)
김윤정(2010)	17.6%(383명)	12.44(15.31)

이러한 연구결과들 중 완전 PTSD 등을 제시한 최신 연구들과 본 연구의 결과를 비교하여 볼 때에도 경찰관의 완전 PTSD 수준이 높으며, 평균값을 비교하여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IV. 경찰관의 PTSD 대처방안

1. 고위험 경찰관의 발견 및 관리

경찰관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근에 외상성 사건을 경험한 경찰관을 대상으로 PTSD 측정도구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고위험 경찰관을 발견하고 추적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요구된다.

현재 경찰에서는 5년마다 한 번씩 심리적성 검사를 실시하여 심리상태 등을 검사하여 위험요인이 확인되면 관심직원으로 분류하여 업무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등의 노력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15].

그러나 최근에 외상성 사건을 경험한 경찰관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위험요인에 대한 측정이 이루어져야만 심각한 스트레스가 만성적으로 이어지거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자료들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고, 다양한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경찰관들을 원조하는 용도로만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2. 위기상황 스트레스 관리 기법의 보급

경찰관, 소방관, 인명구조요원, 교정공무원, 의료직 종사자 등 생명이 위험한 상황과 폭력적이거나 잔혹한 장면에 노출되기 쉬운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위기상황 스트레스(Critical Incident Stress)를 겪기 쉬운데, 이러한 위기상황 스트레스는 수면장애, 긴장, 신경과민, 악몽, 침습적 사고 등을 초래하며, 스트레스가 강화되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발전하게 된다[16].

위기상황 스트레스가 만성화·고착화·악화되기 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는데, 선진국에서는 그러한 스트레스에 대한 심리적 지지 프로그램인 위기상황 스트레스 관리(Critical Incident

Stress Management : 이하 CISM)가 널리 보급되어 활용되고 있다[17].

우리 경찰에서도 경찰관의 외상적 상황 경험에 대한 보다 정확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CISM 및 CISM의 하위 요소인 위기상황 스트레스 해소법(Critical Incident Stress Management Debriefing : CISD) 같은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직원 지원 프로그램의 도입

선진국에서는 조직 차원의 사회적 지지의 한 형태로서 직원 지원 프로그램(Employee Assistance Programs : EAP)을 개발하여 직원의 스트레스 등 개인적 문제에 대한 폭넓은 개입과 예방활동을 펼쳐오고 있다[18].

EAP는 직원이 당면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문가와의 연계 등을 통하여 직원의 고충을 완화시켜 준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스트레스나 문제행동의 예방과 개입을 적극적으로 도모할 수 있다. 또한 EAP는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적 측면에서도 많은 유용성을 갖는데, EAP는 안정적인 노동력의 확보 및 유지, 의료비 등 각종 비용 절감, 생산성 향상, 인명 사고 및 산업재해의 예방, 노사관계의 향상, 조직의 이미지 고양, 조직의 사회적 책임성 완수 등에 공헌할 수 있다[19].

경찰 조직에서도 경찰관을 위한 EAP 프로그램의 도입이 절실하게 요구되는데, 특히 한정된 국가 예산으로 인해 금전적인 보상과 지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EAP와 같은 임금 외적 서비스의 확대를 통해 경찰관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인천지방경찰청에서는 자체사고가 빈발하자 소속 경찰관들의 우울증, 불안, 주벽, 도박, 이성관계, 경제적 어려움 등의 문제를 의사, 심리상담사, 법률 및 경제전문가 등과의 상담·진료를 통해 해소하기 위하여 인하대병원, 길병원 등 13개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였다[20]. 이러한 노력의 결과를 참고하여 향후에 모든 단위의 경찰기관에 EAP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이 요구된다.

4. 동료 및 가족의 적극적 개입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2차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 특히, 가족과 동료 같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의 지지는 핵심적 요소이다.

그 중에서도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동료들로부터의 지지 및 상담은 매우 중요하다. 동료로부터의 지원은 대부분 개인적·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제도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즉, 경찰관서에서 내·외적으로 많은 연륜이 있고, 동료들로부터 신망이 높은 경찰관이 상담자로서의 역할을 하여 1차적으로 경찰관의 위험요인을 발견·대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다.

경찰 기관차원의 심리 검사는 현재는 5년마다 이루어지고 있고, 개선되어진다 해도 최소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이루어질 것인데 이를 통해서는 시시각각 변할 수 있는 개인적 환경 및 행태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CISD나 EAP 같은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진다고 해도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외부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경찰문화의 특성상 경찰관들이 경계심을 가지고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평소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동료 경찰관으로부터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심리적 상담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 자살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트레스 및 정신과적 문제의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동료 지원 프로그램의 운영에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프로그램 담당 경찰관은 사전에 상담 기법, 위기개입 방법, 심리적 문제 판단 기술 등에 대하여 철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둘째, 상담 내용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장이 요구된다. 상담내용을 상담 및 문제 해결 외에는 절대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 상담을 통하여 심각한 위험요인이 확인되면 즉각 의사, 심리치료사, 전문상담요원 등 전문가에게 즉시 인계하여 전문적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또한, 동료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지지도 매우 중요하다. 가족들도 경찰관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개

입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경찰관의 업무에 대한 가족들의 물이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또한 경찰관의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가족문제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가족의 스트레스 및 가정 문제를 제거하고자 하는 노력도 요구된다[21].

5. 스트레스 관리 교육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스트레스 관리(Stress Management) 기법을 교육·훈련하여 경찰관 스스로 스트레스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경찰은 경찰대학, 경찰교육원, 중앙경찰학교, 지방경찰청 지방경찰학교 등의 교육기관에서 경찰관에게 다양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대처에 대한 교육프로그램만 추가하면 별도의 교육시설의 설치 없이 기존의 교육기관에서 효율적 스트레스 대처를 위한 교육훈련을 바로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각 기관별로 전문 상담 및 임상심리 전문요원들을 채용하여 일선 기관에서 경찰공무원에 대한 스트레스를 비롯한 다양한 문제들을 상담하고, 그러한 부정적 문제에 대한 효율적 대처방안을 교육훈련 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22].

V. 결 론

이 연구에서는 경찰관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처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경찰관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실태는 연구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비교적 높은 수준이고, 소방관과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찰관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이 연구에서는 고위험 경찰관의 발견 및 관리, 위기 상황 스트레스 관리 기법의 보급, 직원 지원 프로그램의 도입, 동료 및 가족의 적극적 개입, 스트레스 관리 교육 등을 제시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고위험 경찰관의 발견 및 관리는 최근에 외상성 사건을 경험한 경찰관을 대상으로 PTSD 측정도구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고위험 경찰관을 발견하고 추적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위기상황 스트레스 관리 기법의 보급은 경찰관 소방관, 인명구조요원, 교정공무원, 의료직 종사자 등 생명이 위험한 상황과 폭력적이거나 잔혹한 장면에 노출되기 쉬운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위기상황 스트레스(Critical Incident Stress)를 겪기 쉬운데, 이러한 위기상황 스트레스가 만성화·고착화·악화되기 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러한 스트레스에 대한 심리적 지지 프로그램인 위기상황 스트레스 관리(Critical Incident Stress Management : 이하 CISM)를 널리 보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직원 지원 프로그램의 도입은 직원 지원 프로그램(Employee Assistance Programs : EAP)을 개발하여 직원의 스트레스 등 개인적 문제에 대한 폭넓은 개입과 예방활동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EAP는 직원이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문가와의 연계 등을 통하여 직원의 고충을 완화시킬 수 있다.

넷째, 동료 및 가족의 적극적 개입이 요구된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2차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지원 시스템이 필요한데, 특히 가족과 동료 같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의 지지는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다.

끝으로 스트레스 관리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스트레스 관리(Stress Management) 기법을 교육·훈련하여 경찰관 스스로 스트레스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도록 하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1]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4th ed.), 1994.

- [2] 홍종관, “대구 지하철 화재 사망자 유가족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관한 연구”, 정서·행동장애 연구, 제21권, 제1호, pp.140-141, 2005.
- [3] 유양숙,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가진 가족을 위한 개입”, 사회과학연구, 제4권, 제1호, pp.225-274, 1997.
- [4] R. L. Greene and J. D. Lindy,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victims of disasters,” *Psychiatric Clinics of North America*, Vol.17, No.2, pp.301-309, 1994(6).
- [5] I. V. E. Carlier, R. D. Lamberts, and B. P. Gersons, “Risk factors for posttraumatic stress symptomatology in police officers: a prospective analysis,”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Vol.185, No.8, pp.498-506, 1997.
- [6] H. M. Robinson, M. R. Sigman, and J. P. Wilson, “Duty-related stressors and PTSD symptoms in suburban police officers,” *Psychological Reports*, Vol.81, pp.835-845, 1997.
- [7] Ben Green,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UK police officers,” *Current Medical Research and Opinion*, Vol.20, No.1, p.101, 2004(1).
- [8] W. H. Kroes, B. Margolis, and J. J. Hurrell, Jr., “Job stress in policemen,” *Journal of Police Science and Administration*, Vol.2, pp.145-155, 1974.
- [9] C. D. Spielberger, L. G. Westberry, K. S. Grier, and G. Greenfield, *The Police Stress Survey: Sources of Stress in Law Enforcement*, Human Resources Institute, Tampa, FL, 1981.
- [10] M. Horowitz, N. Wilner, W. Alvarez, “Impact of event scale : A measure of subjective stress,” *Psychosom Med*, Vol.41, pp.209-218, 1979.
- [11] S. Joseph, “Psychosomatic evaluation of Horowitz’s impact of event scale : a review,” *Journal of Trauma Stress*, Vol.13, pp.101-113,

- 2000.
- [12] J. B. Frank, T. R. Kosten, and E. L. Giller, "A randomized clinical trial of phenelzine and imipramine for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Vol.145, pp.1289-1291, 1998.
- [13] D. S. Weiss and C. R. Marmar, "The impact of event scale-revised," In : J. P. Wilson, T. M. Keane, Assessing Psychological Trauma and PTSD, New York : Guilford Press, pp.399-411, 1997.
- [14] 은현정, "한국판 사건충격척도 수정판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신경정신의학, 제44권, 제3호, pp.303-304, 2005.
- [15] 신성원, "경찰관의 가치관이 경찰조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9권, 제8호, pp.376-383, 2009.
- [16] Riddle, Robin Thomas, The Relation Between Life Stress, Work Stress, and Traumatic Stress and Burnout and Cynicism in Police Officers, United States International University, Dissertation for Ph.D., pp.64-67, 1999.
- [17] 신성원, 경찰공무원의 일상적 직업적 경험이 스트레스 수준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 [18] 최수찬, "기업근로자의 사회심리적 당면문제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보, 제6권, 제1호, pp.71-103, 2004
- [19] 박해웅, 최수찬, "근로자의 스트레스가 우울, 자아존중감, EAPs 욕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연세사회복지연구, 제12권, p.6, 2005.
- [20] 연합뉴스, 2009년 5월 6일자.
- [21] 신성원, "경찰공무원의 자살에 관한 연구", 한국 위기관리논집, 제7권, 제1호, pp.61-82, 2011.
- [22] 신성원, 경찰공무원의 일상적 직업적 경험이 스트레스 수준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 [23] 이옥정, 경찰관의 외상성 사건 경험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증상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24] 황인희, 경찰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 및 외상성 스트레스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25] 권순찬, "일개 소방서 소방관들의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 및 관련요인", 대한산업의학회지, 제20권, 제3호, pp.193-204, 2008.
- [26] 최혜경, 소방공무원의 외상사건경험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증상, 정서적 탈진, 신체증상, 사회 및 직업기능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 [27] 김윤정, 소방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저 자 소 개

신 성 원(Seong-Won Sin)

종신회원



- 2001년 2월 : 원광대학교 경찰행정학과(법학사)
- 2003년 8월 : 원광대학교 경찰행정학과(경찰학석사)
- 2007년 2월 : 원광대학교 경찰행정학과(경찰학박사)

▪ 2007년 3월 ~ 현재 : 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관심분야> : 경찰학, 범죄학, 청소년비행